

제1차 이사회 초록

2020년 10월 10일(토요일) 동부 오후 3시, 서부 낮 12시

Cisco WebEx 화상회의

서부 화상회의 참가자:

김태웅(63) 이견일(68) 김성환(71) 이원택(71) 안우성(76) 김동훈(77) 차민영(82) 김자성(85) 김영애(Mrs. 김성환)

동부 화상회의 참가자:

임종식(57) 이만택(58) 이명희(66) 최순채(66) 최영자(66) 주광국(68) 서윤석(68) 강창홍(71) 이성길(71) 서인석(73) 이선희(81) 서귀숙(84) 강민중(91) 박종철(99) 임경빈(99) 송경민(09) 제이미 사무장

Proxy:

한기현(63) 권정덕(64) 최준희(64) 허선행(64) 김일영(71) 정균희(72) 고용규(73) 문대옥(73) 심완섭(73) 전경배(75) 한민우(75) 최광희(79) 남명호(81) 이선규(89)

1. 2020년 10월 10일(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3시(서부시간 정오 낮 12시)에 Cisco WebEx를 통한 화상회의로 제1차 이사회를 시작함.

2. 2020년 1월 11일에 가졌던 1차 대의원회 초록을 검토하고 참가자 전원 이의 없이 동의가 되어 이사회 회의 순서로 이어졌다.

3. 안우성 회장의 인사말: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데, 시계탑과 website 활동으로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원들이 소통을 하며 화목을 도모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lock down이 시작되어 예정했던 37차 학술대회도 열지 못하였고, 지금까지도 어떠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겨울을 지나 내년 봄이 되어서 다음 학술대회를 열 것인가, 언제 열 것인가 등을 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시도를 하는 화상회의에 열의를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회원의 건강이므로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모든 회의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중요사항은 email로 교신을 하고 필요한 안건은 화상회의에서 논의,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원고와 꾸준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4. 화상회의 참석자들 간의 소개:

오랜만에 화상을 통하여 만남에 반가운 인사말이 이어졌다.

5. Nominating committee (71 이성길 chair) 보고:

- By Law에 따라서 지난 회기 4명의 회장단과 4명의 Regional president로 구성이 되었다. 이성길(71) chair, 정균희(72), 한승신(76), 이견일(68), 차민영(82) 남가주 지부 회장, 한민우(75) 대뉴욕지부 회장, 서윤석(68) 버지니아 지부 회장, 문대옥(73). 대의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다 맞추는데 어려운 시기로 인하여 한계를 느꼈다.

- Nominating committee member들이 2021-2022 회기의 새 회장으로 안우성 현 회장을 추천하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고, 2023년의 회장으로는 새 회장님이 남명호(81) 동문을 추천해 줄 것을 이성길 Nominating chair가 건의하였으나 이는 차기 회장의 몫이라고 밝혔다.

- 현 회기의 안우성 회장이 다음 회기 회장으로 연임되었음에 이사회 참석자 전원의 찬성이 있었다.

- 이성길 전회장에게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힘든 해결을 해야 하였던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특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예약한 호텔의 취소를 무난히 풀어나간 점 등 감사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 10명의 새 이사진 선출은 다음 회의로 미루어졌다.

6. Treasurer (85 김자성) 보고:

- 2020년 7월 1일에서 10월 7일까지의 은행 잔고 액수와 동창회비의 합계와 각 committee fund의 합계 액수를 보고 하였다.

7. Fund Management committee (66 이명희 chair)의 보고:

a. 지난 회기(이성길 회기)에서 \$10,000을 추가로 받은 것과 AXA에서 받은 \$22,813에서 \$20,000 장학금을 동창회로 지불한 나머지가 Bluerock Growth Reit에

투자되었다. 이는 4년 후 원금 상환 조건임.

b. 수년간 투자를 하고 있는 AXA의 분기별 이자는 \$17,109(\$5,703을 3회) 받았으며, 별도 투자를 한 \$50,000에 대하여서는 그동안 이자가 동창회 은행 계좌로 보내왔던 것이 COVID19 영향으로 전체적 하락세를 보였으나 다음 달 초에는 받는 이자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함.

이러한 세무 보고와 실제의 재무 관계는 학술대회 일정에 따라서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고 발표하였음.

8. Scholarship committee (91 강민중) 보고:

강민중(91) chair, 이선희(81) Co-chair, 서인석(73), 김태곤(15), 조수정(17), 이익재(20) 등이 모든 안건에 대하여 email과 Zoom을 통하여 의논하였다.

a. 김태웅 장학금에 대한 설명: 매년 \$10,000을 김태웅 장학금으로 받고 있고, 미주 교포 자녀에게 \$2,500씩 두 명에게 수여가 되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교 혹은 대학원생으로 해 왔는데, SNUCM의 학생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고르기 힘든 관계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9년부터 미주 교포 자녀 두 명(동부와 서부 각 한 명씩,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생)에게 \$3,000씩 주기로 되었다. 이에 맞추어 SNUCM 장학생에 대하여서도 \$2,000씩 수여되던 것을 \$2,500으로 늘린 액수로 지불이 결정이 되었음을 다시 상기하여 보고되었음.

b. 이유찬(64) 부부의 이름의 장학금이 지난 해 처음 \$5,000을 받았음과 정병욱 fund에 대한 내력도 보고함.

c. Scholarship committee Future plan: Close relationship with the Green Project committee 임경빈 GP chair(99)와의 교류 증진 / Generation of future leaders Committee's interaction with donors and SNUCM crucial / 동창회의 지원 영역을 더 넓힌 것인가 등.

d. 한국일보를 이용하여 미주 세 지역(남가주,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에 광고를 했고, 신청은 동창회 Website의 서류를 올려서 email로 받았다.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평소보다는 적은 숫자의 학생들이 신청하였으나, 모든 신청자의 자격이 높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많았다.

- 심사과정을 상세히 PPT로 제시하며 보고가 되었고, 장학금 취지에 맞는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김태웅 장학생 2명, 이유찬 장학생 2명, SNUCM 장학생 4명이 선발되었음 보고하였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음.

9. Publication committee (68 서윤석 chair) 보고:

a. COVID19 위험 속에서도 여러 편집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시계탑 발행은 잘 진행되고있으며 지난봄에 한국 파주에서 인쇄를 한 시계탑 문집 6호는 총 1,230부를 발행하여 서울동창회에 90부 그리고 미주 동창회 회원 모두에게 배부가 되고 현재 88부가 남았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별도 연락을 바란다.

b. 근래에 시계탑을 받으시고 여러 동문으로부터 격려의 말씀을 받고 있고, 찬조금까지 보내주시는데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

c. 편집위원에는 변동이 없고, 특별히 도움을 많이 주시는 서귀숙(84) 편집위원과 황창근 인쇄소 사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d. Website의 주광국(68), 송경민(09) 위원들과 긴밀한 연락으로 동창회원들께 소식을 전하고 있다. snucmaaus.org를 이용하여 지난 15년간의 시계탑을 열람할 수 있고, 새로운 소식 또한 접할 수 있다.

10. Advisory and Exchange committee (58 이만택 미주재단 이사장) 보고:

그 동안 미주재단은 14 million을 모금하였고 그 중 2.8 million을 투자 운용하고 있다. 매년 장학금과 연구기금을 수여해 왔고, 2020년 지급한 장학금(총액 \$65,000)의 내용과 2021년도 기부를 약정하신 내용을 보고함.

11. Charity committee (66 최영자 chair) 보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NYCOCO(뉴욕장애아동지원센터)로 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재개장이 되는대로 활동 상황을 알려 오겠다고 하였다. 꾸준한 회원들의 지원 요청이 있었음.

12. 안우성 차기회장(2021-2022)의 수락 인사말:

이사회에서 선출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하였고, 힘든 현 상황을 잘 견디어 동창회가 지향하는 모든 것에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응원의 말씀과 참여 그리고 지원금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하겠다.